

# 더불어 민주당 산자중기위정조위원회 보도자료

보도일시 **2026. 4. 2(목) 배포즉시** 배포일시 **2026.4.2.(목) 10:00**

- 더불어민주당 산중위정책조정위원회(위원장 김원이 의원)와 산업통상부(김정관 장관)는 4월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, 중동상황 장기화와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통상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였다.

## 회의 개요

- 일시·장소 : 2026.4.2.(목) 07:30~08:30,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
- 참석자
  - (黨) 김원이, 권향엽, 오세희, 허성무, 정진욱, 송재봉, 이재관 위원
  - (政)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

- 이번 회의에서 당정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국제에너지 가격, 공급망, 물류, 수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하게 인식하고,
- 민생 부담 완화와 산업 현장 지원, 그리고 공급망과 산업경쟁력 보강을 위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.
- 특히, 당정은 석유·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, 수출기업 비용 부담 경감 및 피해산업 지원, 제조업 AX 대전환 등 금번 산업통상부 추가경정예산안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.

## < ① 석유·핵심 전략자원 공급망 안정화 >

- 당정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,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.
  - 이를 위해, 석유화학산업과 국민 생필품 제조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여 석유화학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, 석유 비축 확대를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.
- 또한,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,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관제와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, 석유시장 감시체계와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하였다.
- 아울러, 전략자원인 희토류의 국내 생산기반 마련과 요소 수입선 다변화 등 핵심 전략자원 공급망도 보강하기로 하였다.

## < ②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>

- 당정은 중동 정세 지속과 해상 물류 불안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, 중소·중견기업과 피해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.
  - 이를 위해,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, 대체시장 발굴, 해외지사화, 해외 현지 공동물류센터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- 또한,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무역보험 및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, 석유화학이 주된 산업인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고부가 전환을 위한 기술컨설팅과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### < ③ 제조 AX 대전환 >

- 당정은 이번 추경이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,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 경쟁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.
  - 이를 위해 제조 현장의 AI 전환과 제조혁신을 가속화하는 제조 AX 대전환 관련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.
  - 조선·철강·자동차·섬유·화학 등 주요 업종별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기반으로 제조업 AX 전환과 제조혁신 가속화를 지원하고,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AX 전환 지원을 위한 데이터센터 실증, 제조 현장과 일상생활에서의 휴머노이드 등 AI로봇 실증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위원들은 원유 수급 불안과 나프타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,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하며,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,
  - 산업위기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- 당정은 무엇보다 이번 추경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즉시 현장에 신속히 전달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,
  - 사전 집행 준비와 전달체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.
- 당정은 앞으로도 긴밀한 당정협의를 바탕으로, 중동발 복합위기에 따른 민생과 산업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,
  -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나가기로 하였다.